

 Validity Foundation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small>UNIVERSITY OF PRETORIA</small> Disability Rights Unit, Centre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retoria	 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Disability Rights Fund / Disability Rights Advocacy Fund	

코로나19와 장애인 권리 모니터 주요 내용과 제안들

드라가나 시릭 밀로바노빅
 국제장애인권리연대
 10 March 2021

COVID-19 Disability Rights Monitor

- 2020년 4월 20일, 협의체 구성하여 코로나19 관련 각국 장애인 대응방안에 대한 독립 조사 긴급 진행 결정
- 각국 정부가 장애인의 생명권, 의료 및 필수 서비스 접근권 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확인하기 위함
- 시설/재가 장애인, 아동, 노인, 홈리스, 지방 거주 장애인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취약한 상황이 가중됨에 따라, 마주한 문제들을 드러냄.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세 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각 분야는 특정 이해관계 그룹을 대상으로 함

- 정부 발행 공식 정보 확보
- 국가 인권기구 모니터링 절차에 따른 정보 확보
-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증언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확보

설문조사

- 웹사이트 만들고 25개국 언어로 설문 진행
www.covid-drm.org
- 협의체의 국제 네트워크 및 워드 파일 형식으로도 설문 진행
- 3개월간 설문 진행(4월 20일~8월 8일)
- 134개국에서 2,152개 응답이 제출되었음. 장애인 당사자(863), 장애인단체(525), 가족(448) 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응답 회수
- 응답자들은 팬데믹 시기동안 장애인과 가족의 경험을 담은 3천개 이상의 서면 증언을 제출

주요 결과

-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팬데믹에서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남
- (국가/국제) 집단적 대응 조치에 장애인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음
- 팬데믹 기간 주요 역할은 대부분 장애인단체/시민사회에서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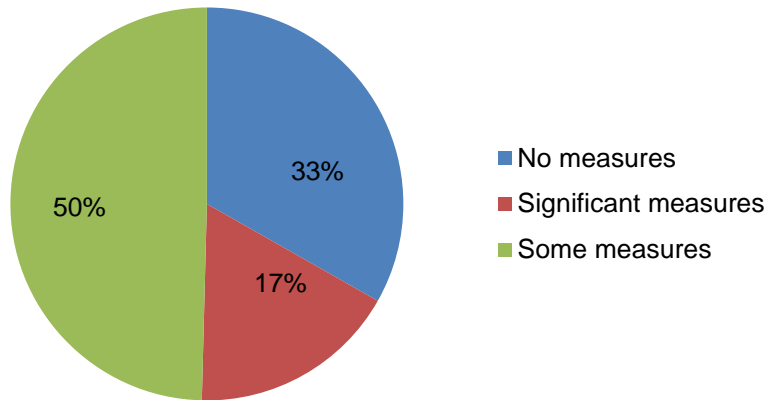
결과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네 개 주제로 구성되었음.

- 시설 거주 장애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한 대책
-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의 중대하고 심각한 붕괴
-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인 그룹에 대한 가중된 피해
- 의료 서비스 접근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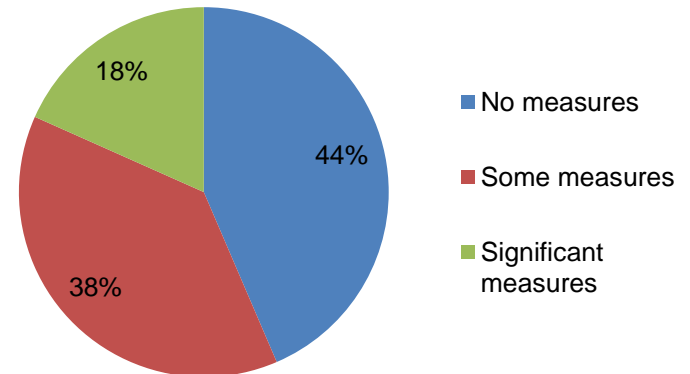
시설 거주 장애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한 대책

- 이번 설문을 통해 전 세계 정부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대규모/소규모 시설들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의 진원지가 되었음. 이러한 시설에는 그룹홈, 정신병원, 장애노인양로원, 장애아동 기숙학교 등 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금되어 있는 거주형 공간이 모두 포함됨

Has the government taken measures to protect the life, health and safe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Has the government taken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schools?



시설 내의 사회적 고립

한 장애인 응답자는 퀘벡에 위치한 헤론 시설 내 거주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다른 거주자들은 영양상태가 안 좋고, 탈수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다. 시설은 "위험할 정도로 직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침대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있거나 기저귀를 세 겹씩 하고 탈수상태에 있다.”

- 불가리아의 장애인시설은 “방역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이 대책은 돌봄 공백, 외부 투명성 감소 및 이로 인한 위험한 학대 은폐”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음
- 그리스 장애인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어느때보다 엄격한 통제 로 굳게 닫혀 있어 외부 방문자나 권익옹호 활동가, 독립 감시관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고 우려하였음
- 독일의 한 응답자는 “이번 조치가 COVID-19 감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중대하고 심각한 지역사회 지체체계 붕괴

팬데믹으로 인해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없었던 복지서비스	Percentage	Number of respondents
활동지원서비스	38%	809
비공식 돌봄 서비스	33%	708
주거지원	29%	604
보조공학	23%	490

우간다의 한 장애인 단체 대표:

"고립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과 심리적 고통, 불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는 정신적 붕괴와 자살 사례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전 세계의 장애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동안 동안 독립성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일부 장애인들은 생존을 위해 가족, 자선단체 또는 NGO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이탈리아 장애인 응답자는 "엄마가 지쳐서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 없이 나도 죽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인 그룹에 가중된 피해

- 장애아동 및 그 가족

"정부에서 새로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여기서 장애아동이 고려되지 않아 이들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 장애인 여성과 소녀

"나는 학대 피해 생존자인데,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아무도 성적 학대로 인해 발생한 외상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 노숙인 장애인

르완다의 한 장애인 응답자는 "심리적 장애를 가진 노숙인들은...강제로 안에 가둬두기 위해 정신과 시설로 옮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있다."

- 시골 지역 장애인

응답자 과반수(59%, 792명)는 정부가 시골 지역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료 서비스 접근 거부

- 남아프리카 장애인 당사자:
"나같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그러나 통증 전문의의 진료도 받을 수 없고, 병원에서 내원도 허락하지 않아 치료도 받을 수 없다."
- 노르웨이 장애인 가족: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의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활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대기자 명단에 올라 겨우 재활을 받고 있다."
- 영국의 한 장애인 단체 대표:
"우생학이 은밀하게 개입되었다. 특히 노인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DNR(Do Not Resuscitate Not Ercience, 소생술금지)가 적용되었다."

정책제안

1. 긴급탈시설 계획을 이행한다. 이 때,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함**. 여기에는 팬데믹 발생중/후 시설 신규 입소 즉시 금지, 시설에서 지역사회 지원 및 서비스로 예산 이동 등이 포함됨
2. **코로나19 대응 계획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의 완전한 참여, 의미 있는 참여 및 리더십을 보장**한다. 전염병에 대응하는 모든 정책의 설계 및 구현에 장애 아동과 청년,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 단계를 밟는다.
3. 긴급 대응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특히 여성과 소녀, 시골 또는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 청각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장애인노인 등과 같은 교차 형태의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한다.
4. 모든 회복 노력이 장애인의 **생명, 건강, 자유**, 고문, 학대,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5. 모든 장애인이 **식품, 의약품 및 기타 필수 물품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제안

6. 장애인이 **기본, 일반, 전문/응급 의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 또는 손상에 기반해 차별하는 우선 치료자 선정 정책이 도입되지 않도록 한다.
7. 장애인이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프로세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및 인력을 할당**한다.
8. 장애인이 항상 개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등 타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9. 어린이와 장애 청소년, 특히 집단 시설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 교육**을 우선적으로 구성한다. 대안적 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 편의를 제공한다.
10. 전염병, 대응 노력, 공중 보건 정보 및 지침과 관련된 정보가 **다양한 형식의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급되도록 한다.
11. 경찰 및 사법당국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 보건 관련 제재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책임을 묻는다. 긴급 조치 결과로 학대, 포력, 착취에 노출된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보장한다.

권호옹호 활동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3개의 긴급 성명 발표.
- 성명은 정부가 i) 시설 내 치명적인 인권 유린을 종식하고 ii)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잔혹한 진압을 종식시키며, iii) 장애인의 식량, 의약품 및 기타 필수 물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
- 루마니아 거주시설 내 상황에 대한 긴급 행동 개시.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19 치료 요구

유엔 CRPD 탈시설 워킹그룹

- CRPD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의 온라인 지역 협의를 시작:
"고립, 비가시화, 분리에서 지역사회 참여로; 성공적 탈시설 정책을 위한 과제와 방향"
-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CRPD 위원](#)과 지역별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예정.
- 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에 관한 최초의 지침 초안을 준비할 예정. 지침의 목표는 CRPD 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와 CRPD 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의 실현 강화.
- 현재까지 간담회 총 2회 개최: (1)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2) 중남미
- 아태지역 간담회 일자는 **미확정**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dciric@driadvocacy.org

조사 결과 및 보고서 참조:

www.covid-drm.org

<https://www.covid-drm.org/en/statements/covid-19-disability-rights-monitor-report-highlights-catastrophic-global-failure-to-protect-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